

지난해

12월에 열린 국가에너지절약 유공자포상 수여식에서 중앙전자통신의 안종렬 사장은 산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개발과 보급에 앞장선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중앙전자통신은 업계 최초로 ISO9001인증을 획득,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에 경주해왔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특수한 제품을 개발해 틈새시장을 노리는 등 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준비하는 회사만이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안종렬 사장의 이러한 경영철학이 동종업계 대표주자로 주목받는 밑거름이 됐다.

‘업계의 선두자리 지켜 조명보국을 실현한다’

전자식안정기 전문제조업체인 중앙전자통신의 창업정신이다. 이에 걸맞게 이 회사 제품은 중소기업청의 KS마크, 한전의 고마크, 에너지관리공단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등 3가지 규격마크를 보유하고 있어 전자식안정기업계의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해외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금은 JIS, UL, CE인증 취득을 준비중이다.

안종렬 사장이 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 올해로 13년이 된다. 품질 향상과 에너지절약을 위해 일찍부터 기술투자를 해온 결과 이 회사 제품은 수요처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EMI(전자파장해)와 고조파 함유율(THD) 부문에서는 다른 업체에 비해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중앙전자통신의 납품업체는 지하철공사, 철도청, 인천국제공항 등의 공공기관을 비롯해 육군통합병원, 일산의료보협조합병원, 분당재생병원 등 의료기관까지 폭넓고 다양하다.



지난 98년 고마그룹의회의 회장직을 맡았던 안종렬 사장은 등기구에서 전자식안정기를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중기청의 유권해석을 받아내 어려움을 겪던 안정기시장여건을 정립하는데 기여했다.

안정기 업계의 대표주자

중앙전자통신(주) 안종렬 대표이사

등기구와 안정기의 분리발주 풍토조성이 나의 바램

■ 김인숙 기자 (kis@energycenter.co.kr)

또 지난해 ESCO협회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하면서 ESCO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동안 IMF 여파로 한달에 2~3만개 생산이 고작이었으나 신제품 개발이후 주문량이 꾸준히 늘어 지금은 연평균 5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다. 바쁠 때는 생산직 뿐 아니라 관리직 직원들도 생산라인에 투입돼 일손을 거들지만 매출이 늘어 힘든 줄 모른다고.

등기구와 안정기의 분리발주 이루어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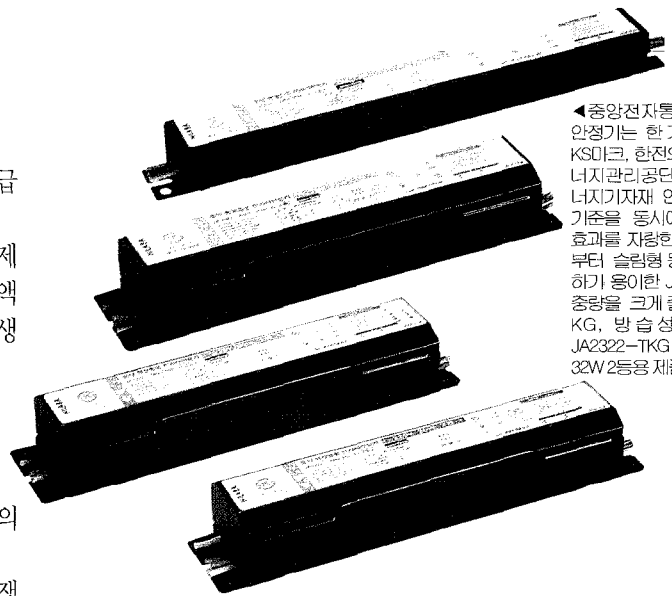
현재 국내 안정기시장은 8백~1천억 규모이며 대략 40~50개의 생산업체가 존재한다.

그중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다보니 시장 전체가 가격경쟁으로 치달게 되는데, 안사장은 이러한 업체난립·과열경쟁때문에 업체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어떤 기업이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생각하고 과열로 치닫게 되면 결국은 모두 자멸하고 맙니다. 업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이윤추구도 선결되어야겠지만 그에 앞서 기술개발에 몰두하고 그것이 제품제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정기시장의 가격경쟁이 심하고 이익창출의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은 안정기가 등기구 부속부품 취급을 받기 때문이라고 안사장은 설명한다. 등기구와 안정기를 한 개의 물품으로 등기구에 포함해 발주됨으로써 제값에 판매하지 못하는 애로를 겪어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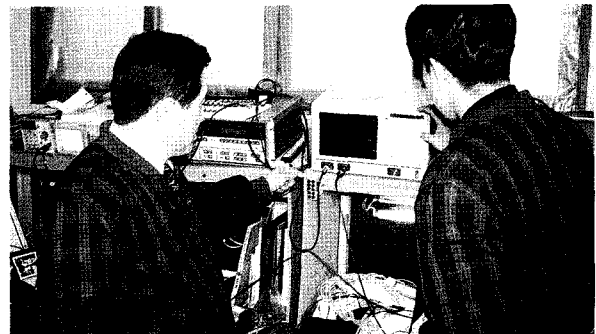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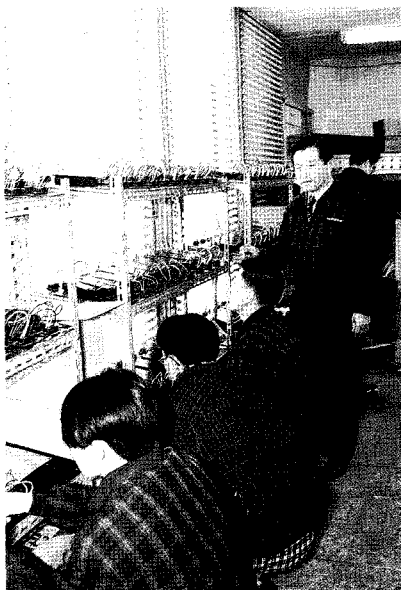
안종렬 사장은 지난 98년 고마크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 분리발주 질의서를 제출하고 분리발주의 당위성을 납득시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했다.



◀중앙전자통신의 전직식 안정기는 한 개의 제품으로 KSM마크, 한전의 고마크, 에너지관리공단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등 세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효과를 자랑한다(사진 맨위부터 슬림형 등기구에 사용하기 용이한 JA2322-SKG, 총량을 크게 줄인 JA2322-KG, 방습성이 뛰어난 JA2322-TKG 20W 2등용과 32W 2등용 제품).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단체수의계약물품 구매시 분리구매를 해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발주관서의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관리의 효율성, A/S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시정되었던 것이다.

안사장은 아직 일부기관에서만 시행되는 분리발주의 풍토가 하루속히 사회전반에 조성되기를 희망했다. 특히 올해에는 중앙전자통신의 코스닥 상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동안 연구개발해오던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을 앞두고 있어 마케팅 전략에 총력을 다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중앙전자통신 설계실 직원과 함께 안정기 성능실험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왼쪽)형광등기구와 연결시 제품의 안전 및 작동여부를 최종 테스트하고 있다.

(오른쪽)한동안 IMF 여파로 한달에 2~3만개 생산이 고작이었으나 신제품 개발이후 주문량이 꾸준히 늘어 연평균 5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다. 바쁠 때는 생산직 뿐 아니라 관리직 직원들도 생산라인에 투입돼 일손을 거들지만 매출이 늘어 힘든 줄 모른다고.